



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안

새보람

SAEBORAM



김정록 회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26호

2011년 7월

장애인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해!!

2008년 4월 11일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수많은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장애인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갑시다.

내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권역별 지역 장애인인권위원회 발대식

- 주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주관: (사)대전·충남·충북 지체장애인협회
- 장소: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일시: 2011. 7. 19(화) 10:30



“지장협,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수호자’ 선언!”

지역인권위원회 발대식 개최...인권 수호 ‘결의문’ 발표

7월 19일 대전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장애인인권위원회 발대식 및 인권위원 임명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인권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의 '인권수호자'임을 공식 선포했다.

지장협은 7월 19일(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인권위원회 발대식 및 인권위원 임명식(이하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이날 발대식에서는 충청지역(대전, 충북, 충남)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250명의 지역장애인인권위원회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들의 사명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하며 장애인인권수호의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임명된 250명의 지역인권위원들은 것은 물론,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김정록 중앙회장은 인권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인권(人權)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말하며,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이기에 그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임명된 인권위원들의 책무가 너무도 막중하다"며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장애

인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물론, 함께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지장협 지역인권위원회의 힘으로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장협은 지역장애인인권위원회를 7월 이내에 '전국조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월) 광주 서구에 위치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 27일(수)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는 서울·인천·강원·경기지역, 28일(목) 대구에 소재한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부산·대구·울

산·경북·경남지역의 합동발대식을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19일(화) 발대식에서 임명된 지역장애인인권위원 일동이 발표한 '결의문'의 전문이다.

결의문

금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우리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자 존엄의 가치인 '인권'이 장애인복지의 기본임을 강조하며, 지역 내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 내 장애인의 '인권수호자'라는 사명(使命)으로 무장, 인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그들을 대변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 내 장애인인권을 침해하는 정책 및 제도를 감시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을 관계기관에 적극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인권침해 요소도 태산(泰山)처럼 여기고, 이를 개선하는 데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발행인 칼럼



지난 2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까운 기다림을 이
해해주지 못하
는 사회가 문
제였을 것입
니다.
더 많이 이
해하고 더 많
이 보듬어 주
어야 할 터인
데, 그러지
못하거나 그

리고 그는 호주에서의 삶을 너
무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0년도 훨씬 더 전의 일이
니, 당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
다.

장애인 보듬지 않는 사회

현재 대한민국의 환경은 어
떻습니까?

자폐아에 대한 관심은 영화
‘말아톤’으로 고조되었다가
곧 잊혀졌고, 또 수영소년 이
진호군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
그램 이후 다시 잊혀졌습니다.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이 구
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까지 마련할 수는 없을 것
이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또 부끄러워하게 했을
것이고 그런 관심과 부끄러움
을 통해 현재 구조나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러한 것들이 너
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꼭 정책과 구조의 개
선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
합니다.

일상에서 세심한 배려를

최근에 어느 신인 가수의 노
랫말이 심의에 걸려 ‘방송불
가’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사에 ‘병어리’라는 표현
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확히 말하면 노래가사 중 ‘당
신을 만난 순간 꿀 먹은 ’병어
리’가 되었네’라는 가사가 문
제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창작의 자유에 속하는 대중
가요에 장애인을 위한 엄격하
고 세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
나는 사실에 잠시 놀랐지만,
언어 표현 하나에도 그토록 세
심한 우리 사회가 정작 얼마나
세심하게 장애인 정책을 펼치
고 있는지가 우선이라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외국 어느 도시에 갔
다가 좀 특별한 버스를 본 적
이 있습니다.

그 버스는 정거장에 서 문을
열면, 입구가 바닥으로 내려가

보도와 맞닿게 되어있었다. 휠
체어가 타기 쉽도록 고안된 버
스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버스를 탈 때마다
휠체어 탄 장애인을 참으로 많
이 봤다. 그 도시에 장애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도시의 버
스들이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
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봉
사라는 말을 굳이 써서 뭐하겠
는가. 다양한 사람들이 공히
같은 것을 누릴 뿐이다. 그 다
양한 사람들 중에 다만 내가
있을 뿐이다.

대중가요의 가사 하나에도
지금까지 세심한 우리 사회가 그
야말로 보다 더 세심해지기를
바래봅니다. 엄마와 함께 걷고
있는 장애아동을 동정의 눈빛
을 건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
다. 가사를 잘라내는 것보다는
길의 ‘턱’을 잘라냈다는 보도
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
가는 장애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회장 김정록

◆ 김정록 중앙회장 동정(6월15일~7월15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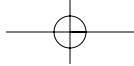
일시	내용(장소)	일시	내용(장소)
6월 16일	제129차 시도협회장 회의(외백)	7월 1일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원장 임명(회장실)
6월 21일	중앙회 월례회의(이룸센터 교육실)	7월 4일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참석(이룸센터 앞)
	국립재활원 원장 방문(회장실)	7월 5일	조향현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장 방문(회장실)
6월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원추천위원 회의 (한국장애인개발원)	7월 7일	숫대문학 창간 20주년 기념식 참석(공군회관)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 개선 토론회 참석 (국회의원회관)
6월 27일	인물주간지 ‘코리아 워크’ 인터뷰(회장실)	7월 12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6월 28일	고용촉진전문위원회 회의 (팔래스호텔)		UN장애인권리 간담회(코리어나 호텔)
	박은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국회 헌정기념관)	7월 13일	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총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월 30일	한국장애인재단 이사회 (한국장애인재단)		



인물주간지 ‘코리아 워크’ 인터뷰.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양봉남 신임원장 임명.



“독도 지키기, 경북지체장애인이 함께 합니다”

23개 시군지회장 및 직원 110명 독도 방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장재권, 이하 경북협회)의 23개 시·군지회장 및 실무직원 110여 명이 지난 7월 6일(수) 독도를 방문해 ‘독도사랑 캠페인’을 펼쳤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의 후원과 대아고속해운, 대아리조트의 지원으로 독도를 방문한 경북협회의 지도자들과 직원들은

‘독도 지키기 경북지체장애인이 함께 합니다’라는 메인 현수막과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 등이 적힌 수십 개의 현수막과 ‘독도는 우리 땅 우리가 지킨다’, ‘역사 왜곡 일본 응징하여 바로 잡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독도 수호를 결의했다.

또한 퍼포먼스를 마친 후에는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 30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장재권 회장은 “우리에 게 이런 뜻 깊은 기회를 제공해 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황인찬 대아가족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독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처럼 더욱 합심하고 협동해서 장애인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지도자들의 이번 독도 방문은 장애인지도자 중 첫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를 방문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 이하 대전협회)가 7월 15일(금) 해군특수전여단을 방문,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윤석연 협회장을 비롯해 부대를 방문한 80여명의 회원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임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해군특수전여단 장병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군 장병들과 허물없는 대화를 나눴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 군복무에 충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윤석연 협회장은 “ ‘불가능은 없다’라는 신념으로 무장

해군특수전여단 격려 방문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7월 15일 해군특수전여단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한 후 군 장병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해군특수전여단은 소말리아해역에서 해적들을 완벽하게 제압하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부대로 우뚝 섰다”고 말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해군특수전여단의 정신은 지금을 살아가는 장애인들

의 진정한 자랄 및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회 측 군 장병들을 격려한 후 저격수사격훈련을 참관하고 해군사관학교 박물관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을 견학했다.

‘장애인 극기체험 래프팅대회’ 개최



‘제10회 장애인 극기체험 래프팅대회’의 참가자들이 물살을 가르며 래프팅을 즐기고 있다.

장애인들의 위기극복 능력과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제10회 장애인 극기체험 래프팅대회’가 지난 7월 8일(금) 산청군 경호강

일원에서 개최됐다.

JCI 산청청년회의소(회장 류덕천)가 주관하고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준식)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700여명이 참여해 친목과 화합

의 시간을 가졌다.

산청민속보존회의 모듬북 공연을 식전행사로 오전11시 산청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오후 1시부터 실시된 래프팅 대회에서 장애인들은 경호강 수계정에서부터 내리마을 앞까지 약 5km에 이르는 구간을 물살을 가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으로 래프팅의 매력에 흠뻑 취했다.

한편 이날 래프팅 대회에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보트 한 척당 장애인 6명, 인명구조요원 2명, 자원봉사자 2명이 탑승했으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산청경찰서, 산청소방서, 산청군 보건의원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협조하는 등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모두 하나 되어 동료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매진

‘의료협약’ 및 ‘교육지원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와 리더스건강검진센터와의 ‘의료협약’ 체결 모습.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변창수, 이하 충북협회)가 지난 6월 22일(수)에는 리더스건강검진센터(원장 박찬중)와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리더스건강검진센터는 중부권 최대의 건강검진센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리더스건강검진센터에서는 향후 충북협회와 관련 모든 행사에 의료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충북협회 회원의 치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협회는 지난 6월 8일(수) 주성대학 부설기관인 주성사이버평생교육원(원장 박용석, 이하 교육원)과의 ‘원격학습 교육지원에 관한 관·학 업무협약’을 체

결한 바 있다.

교육원은 지난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인가받은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 향후 자격증 취득 및 학위수여도 가능하다.

특히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 회원들이 앞으로 주성사이버평생교육원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시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변창수 협회장은 “주성대 사이버평생교육원과 리더스건강검진센터와의 협약을 통하여 충북 도내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확보하며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장님보다 ‘기사님’ 호칭이 더 좋습니다”

박태규 지회장 ‘운행봉사활동’ 주위 귀감

취임 후에도 봉사 계속...“무거운 자리일수록 더 열심히 활동해야”

대전협회 서구지회

“오늘 이동차량의 운행 일정이 어떻게 되죠?”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박태규(61) 서구지회장이 지회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다. 박 지회장은 언제나 장애인 이동차량의 운행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한다.

박태규 지회장은 지난 4년여간 대전지역 내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재활치료를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 이동차량의 ‘운행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올해 1월, 대전광역시지

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의 신임 지회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매일 2~3회씩의 운행봉사활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다. ‘무거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박 지회장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내 장애인들은 “처음에는 기사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장애인 단체의 회장님인걸 알고 무척 놀랐다”라고 회상하며 “처음에는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도 되었지만 몇 번 이용하다 보니 솔직히 지금은 ‘회장님’인지 ‘기사님’인지 가끔 잊어버린다”고 웃으며 소감을 말했다.

을 말했다.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반응에 박 지회장은 “회장님보다는 ‘기사님’이란 호칭이 더 친근하고 정답다”라고 답했다. 또한 “봉사활동은 장애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알게 됐고, 이것을 조금이나마 보완·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박 지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대전광역



장애인이동차량에서 이용자의 하차를 돕고 있는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박태규 서구지회장(왼쪽).

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장학회’를 구성, 영세 장애인가정 자녀 10명에게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서구지회 임직원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라며, 항상 친절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역 장애인을 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로 지역 장애인을 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태규 지회장은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직접 발로 뛰며 실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1회 일일장애체험 행사’ 개최

서울협회 동작구지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지회장 이용호)는 7월 1일(금) 서울 노랑진초등학교운동장에서 ‘제1회 일일장애체험 행사’를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지체장애(휠체어 타고 낮은 턱 넘기), 시각장애(안대로 눈



7월 1일 노랑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일일장애체험 행사’ 모습.

을 가린 후 점자블럭 위 걷기), 언어·청각 장애(동작을 이용한 퀴즈풀기) 등 유형별 체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겪는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장애유형에 따른 에티켓,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어인들의 불편사항, 장애유형에 따른 에티켓,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관광활성화 간담회’ 개최

관광실태 점검, 편의시설 개선방안 등 논의



경주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가 지난달 20일 개최한 ‘경주시 장애인관광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모습.

경북협회 경주시지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경주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센터장 이상인)가 지난 6월 20일(수) ‘경주시 장애인관광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청 관광마케팅사업단 이희도 단장,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박태수 과장 등 경주시 관광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관광의 실태와 장애인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숙박, 음식

점 등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주를 찾는 장애인관광객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 장애인문화해설사 양성교육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인 센터장은 “경주시 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가 전국에 확산돼 앞으로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26호 2011년 7월 20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사 동정

•임명 양 봉 남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원장

성명서

“장애인을 위한 이행급여제도 활성화하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 20%를 넘고 있다.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수급자 1종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환자로 분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근로 등 기회조차도 박탈되고 있다.

기재부는 수급자들의 대상자에서의 탈출을 돕기 위하여 취업이나 사업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비와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2년 간 연장 유지해 주는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가 소득을 얻을 경우나 치료 중인 환자로서 의료급여비가 소득보다 클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취업을 할 수 없어 희망

키움통장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희망통장을 통하여 탈시설하여 자립하고자 하여도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수급비는 가구수에 따라 월 53만원에서 190만원을 수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료급여까지 계산하면 평생 동안 연간 1인당 2천만원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수급자가 수급대상자에서 탈출하면 평생 국가가 수급비를 부담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며, 탈출에 필요한 비용을 1억 원 이상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적 이익과 개인적 자립을 위해서라도 정책을 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장애인들은 가구소득이 국민의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개인 소득은 월 80만원에 불과하여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비와 의료급여가 바로 중단되고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시 실직을 하여 수급자가 되려면 최소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희망키움 통장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면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장애인들의 자금마련에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줄이고 자립으로 유도하려면 희망키움 통장 대상자만이 아니라 수급자에서 탈출하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2년) 의료급여를 이행급여제로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이 크지 않아 수급비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면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소득행위인 경제활동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복지예산의 부족을 더욱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거나 자립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현실감을 국가는 가져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자립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수급권자에서 벗어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절대로 수급권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장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이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로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희망키움 통장의 가입 대상이 반드시 소득활동을 전제하지 말고, 장애인의 자립설계에 활용되도록 기여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경제활

동을 통하여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지하여 도와야 한다.

장애인의 문제도 항상 모든 정책개발에서 고려되는 포괄적 설계가 이제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의 안정망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이나 손실이 없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을 월 소득 발생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난 후에 자립기반을 확인하고 안정전망을 견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에 주저함이나 미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롯데제주리조트 ‘휠체어리프트버스’ 기증



롯데제주리조트 측이 제주협회 서귀포시지회에 ‘휠체어리프트버스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주협회 서귀포시지회

롯데제주리조트(대표 김창권)가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지난 6월 17일(금)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지회장 강유민, 이하 지회)에 ‘휠체어리프트버스 기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기증이 약속된 휠체어리프트버스는 29인승 중형버스(가격 8000만원)로 전동휠체어 4대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리프트장착 등 개조과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운행할 예정인 이 휠체어리프트버스는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의 운영을 통해 서귀포시 관내 지체장애인 중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증서를 전달한 김창권 롯데제주리조트 대표는 “이번에 기증된 차량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에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연금이와 떠나는 ‘공감여행 1박2일’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에서는 지난 7월 12일(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과 함께 ‘연금이와 떠나는 공감여행 1박2일’을 진행했다.

이번 관광은 경제적 어려움과 관광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여행 기회가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수)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정록)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협약(MOU)』을 체결한 후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충북 제천에 소재한 청풍리조트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국민연금공단이 공동주최한 ‘연금이와 떠나는 공감여행 1박2일’ 모습.

실시된 이번 여행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15명, 복지관 직원 5명, 국민연금공단 직원 17명 등 총 37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승마(마차)체험, 서양문화식사 예절 교육, 수경분수 관람, 단양팔경 유람선 관광 등 충청권의 유명 관광지를 체험함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단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류지형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올해 10월부터 실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으로 우리 공단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출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예산 증액 편성 '주목'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2012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 상임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예산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별 예산액과 추진 계획을 들여다봤다.



장애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2009년 11월 여의도공원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모습.

장애인연금, 2만3천여원 인상 계획

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연금을 최대 2만3000여원 인상, 최고 17만4,300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올해 예산 2,887억 2,400만원보다 701억8,200만원 인상한 금액인 3,589억600만원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내년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올해(32만 5,556명)보다 1,911명 늘어난 32만7,467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지급 대상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56%로 정한 것으로, 58만5,000명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장애인들의 기대가 높았던 장애인연금액의 기초급여(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 소득의 5%)는 올해 9만1,200원에서 3,100원 인상, 9만4,300원으로 편성됐다. 단, 65세 이상부터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전환됨

에 따라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계층별 연금액이 다른 부가급여는 각 2만원이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상에 따른 부가급여를 살펴보면 18세~64세 미만의 기초수급자(2011년 현재 6만원), 차상위(5만원), 차상위초과(0만원) 계층은 각각 8만원, 7만원, 2만원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2011년 현재 15만원), 차상위(5만원), 차상위초과(2만원) 계층은 각각 17만원, 7만원, 4만원이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시설수급자(2011년 현재 7만원)와 2010년 7월 당시 중증장애수당 12만원을 받던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액은 동결됐다.

복지부 안대로 확정되면 현재 9만1,200원에서 15만1,200원 수준인 장애인연금은 내년 11만4,300원에서 17만4,300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장애인연금 제도의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3%가 반영돼 올해 4억9,5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꼭 내년에는 장애인연금이 2만원 이상 오를 수 있도록 기재부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예산 3배 증액

201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예산으로 올해 5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18억 7000만원이 편성돼 눈길을 끈다.

복지부의 '2012년 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예산은 장애인생산품인증제운영에 필요한 예산 3억 7000만원과 경영컨설팅지원 예산 1억 3000만원으로 5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 예산안에는 장애인생산품인증제운영에 3억 7000만원, 경영컨설팅지원에 5억원 편성하고 올해 없던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사업 지원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했다.

10억원의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가 강화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전년도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8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품으로 한정하고 품목에 따라 5~20%를 우선 구매토록 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예산 '동결' 편성

복지부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예산을 올해와 같이 동결한 반면,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

비 예산은 100% 늘려 잡았다.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대비 29억 4300만원 늘어난 302억 3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에는 ▲장애인행정도우미 183억4000만원 ▲시각장애인안마사 47억520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 66억15000만원 ▲장애인일자리 전문 관리 체계 5억원 ▲장애인일자리 운영지원 38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하루 근무 시간과 급여가 변동 없이 각각 하루 8시간(12개월), 월 85만 5000원으로 맞춰지고 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복지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비는 올해대비 100% 증액된 수치다. 인원은 올해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돼 있으며, 임금은 9개월 동안 월 1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잡혀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비는 올해대비 2.9% 증액됐지만, 9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지원 금액 및 기간은 변동이 없다. 다만, 인원이 올해 6500명에서 7200명으로 늘려 잡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장애인행정도우미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복지부가 30%(서울), 50%(지방)를 지원하게 된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고보조로 80%가 지원된다.

한편,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편성

장애인 성년후견인 양성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 주목된다.

복지부(장관 진수희 · 이하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부모교육 시범운영 1억원과 △장애인 성년후견인 양성 및 관리 2억원으로 구성됐다.

부모교육 시범운영은 지적·자폐 영역을 구분해 영유아기, 아동기, 성인기 3개 과정(1과정당 4회 교육)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건비, 장애인돌보미, 운영비가 포함됐다.

장애인 성년후견인 양성 및 관리의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 홍보비가 들어있다. 이는 지난 3월 민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성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밖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 재활센터지원 예산 3억원'도 내년 신규 예산안에 포함됐다.

'중증척수장애인 의료 재활센터지원 예산안'은 기존 권역 재활병원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 재활센터 1개소를 설립 지원하는 것으로, 척수손상 시설 및 의료 재활장비 구축, 환자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쓰이도록 편성됐다.

〈출처-에이블뉴스〉



'201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예산'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18억원이 편성됐다.

성폭행 피해 장애인 위한 ‘법률조력인제도’ 도입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법률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7월 13일(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은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해 피해자 본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대변할 법률전문가의 조력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률조력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선 피해자변호인으로, 민사·가사절차에선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무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인 법률조력인 활동은 △법률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시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 참여 △증거보전절차 참여 △공판정 출석, 증인신문 참여 등이다.

검사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 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피해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성폭력사범의 특

성상 특히 어린 아동과 장애인은 가해자 측의 변명에 따라 반복조사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으

므로, 검찰의 재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을 줄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도 도입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법무부는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등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피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의견서 제출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인권정책과장

< 전화 02-2110-3648, 팩스 - 02)2110-3140,

이메일 - hsmoon12@spo.go.kr>

등급 취소 장애인 LPG차량 처분기간 연장

2→6개월...장애계 ‘정책건의서’는 검토중



7월 12일부터 장애등급이 취소된 장애인 LPG차량의 처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에이블뉴스

7월 12일(화)부터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된 장애인의 LPG차량 처분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경)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을 개정, 12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재심사 대상이 확대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애자격 취소자 속출이 예상돼, 장애등급 취소시 이의신청,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장애등록 후 LPG차량을 구입했지만 이후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될 경우, LPG차량 사용 자격이 상실돼 2개월 내에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로 등급이 취소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최대 4개월 정도 소요된다. 만약 2개월안에 LPG차량을 매각했지만 이의신청 결과가 더 늦게 나오게 되면 장애인 분들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임시

방편으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계는 지난 4월말께 지식경제부에 장애인LPG차량의 매매와 양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책건의서에는 △5년 이상 사용한 장애인LPG차량, 비장애인매매 가능 △차량 구입이후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된 경우의 장애인LPG차량 이용 가능 △장애인LPG차량 이용 가능한 보호자 확대 등이 담겼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의 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방통위,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공표

지상파, 2013년 자막방송 100% 의무편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29일(수)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제정됐다.

중앙지상파방송사는 오는 2013년 까 지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의 편성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지역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다.

케이블방송사 등 유료방송사는 2016년까지 지상파 방송사의 50~70%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지난 23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방송에 관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쉬워진다”

경찰청, 청각장애인 위해 문자로 시험 진행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7월 1일(금)부터 청각장애인의 면허취득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을 치를 때 차량 내

부의 채점기에 지시 내용이 ‘문자’로 표시되도록 채점기 프로그램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은 채점기에서 방송되는 음성 지시에 따라 진행되면서 기기 조작과 차로 준수, 급제동 능력 등이 평가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은 그동안 음성 지시를 듣고자 수화통역자를 데려오거나 지원반아 옆에 태워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안내견 더럽다··당장 내려” 지하철 난동

무개념 여성, 시각장애인에게 사과·하차 요구 네티즌들, “정말 개념 없다…화가 난다” 비판

한 여성이 안내견과 함께 지하철을 탄 시각장애인에게 당장 내릴 것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14일(목)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보고 소리지르던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조회수 15만여건을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일으켰다.

이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얻기 하루 전인 13일(수) “시각장애인이 안내견

을 데리고 장애인석에 앉아서 가는 게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나”며 황당했던 일을 상세하게 적었다.

올라온 글에 따르면 7월 13일(수) 오후 4호선(당고개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내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은 공단역 쪽에서 시각장애 여성이 안내견과 함께 탑승하자 “이렇게 지하철에 큰 개를 데리고 오냐. 당신 미쳤냐”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어 여성은 “교양 없게 당장

그 개 치우지 못하냐. 당신한테 귀엽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겐 상당히 더럽다”며 “당장 사과하고 내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은 또한 “저기 있는 내 신문을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이에 시각장애 여성이 자신의 주변을 손으로 훑으며 신문을 찾기 시작하자 “개털 달아서 더러워서 안 본다”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이에 이를 지켜보던 몇몇 승객들이 “안내견인데 왜 그러냐. 그 만하라”고 달랬지만, 여성은 “지하철 신고 전화로 신고하겠다”며 긴급할 때 쓰는 지하철SOS 전화기를 이용해 신고하기까지 했다. 결국 지하철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다시 지하철 운행이 이어졌지만 여성의 소동은 계속됐다.

글쓴이는 “시각장애인 언니는 어딘가에 전화해서 ‘자기 잘못이나’며 물어보기까지 했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며



한 여성이 안내견과 함께 지하철을 탄 시각장애인에게 ‘당장 내려라’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해당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모습. ©해당 게시판 캡처)

“사과 받을 일을 당했지만 아무 대처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시각장애인 언니가 이일로 크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난동을 부린 여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4호선’이란 네티즌은 “저 안내견이랑 같은 칸을 타고 있는데 전혀 피해될 것 없었고, 주인 다리 밑에 앉전하게 앉아 있었다”며 “정말 개념 없다. 개념 있게 좀 행동하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 시각장애인 여성이 앞으로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을 꺼려할까봐 걱정”이

라고 했으며, “이제껏 봤던 글 중에서 제일 화가 난다. 강아지는 무슨 죄고 장애인은 무슨 죄인가”라는 지적도 올라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이정선 의원,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수상



이정선 의원이 인권화합부문 수상을 마치고 시상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위원회(회장 서영훈)는 7월 15일(금)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5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시상식’을 개최해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5명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을 수상했다.

이정선 의원은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민생법안을 제·개정하는데 앞장섰다”는 공로로 이날 수상(인권화합 분야)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문화예술 부문에서 양팔이 절단된 의수 화가 석창우 화백, 사회복지부문

에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운영하는 송기준 한국장애인협회 전남목포시 지회장이 수상했다.

또한 기관·단체로는 장애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흥천군청(군수 허필홍)과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케어서비스를 시행한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가 뽑혔다.

한편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위원회는 이회호 여사가 명예회장을,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측은 이날 수상자 흉상을 제작해 명예전당에 영구히 안치할 예정이다.

인권위, 장애수당 가로챈 시설장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센터장 A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7월 12일(화) 밝혔다.

인권위는 또 A씨에게 장애인 들로부터 가로챈 수당 등 2500여만원을 즉시 반환토록 조치했다. 울산광역시청과 해당 구청장에게는 센터 회계 담당자 교체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센터는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등 보조금 명목으로 2009년에 9천400여만원, 지난해 1억2100여만원, 올 해 1억24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이 센터는 장애생활인 복지 및 식생활에 써야 할 수

급비와 장애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한 뒤 1인당 생활비 25만원과 용돈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했다.

조사결과 이 센터가 회계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4700여만원으로 이 중 장애생활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만 2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생활인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와 복지, 자립을 위해 사용해야 할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시각장애인 B(52)씨는 “A씨가 장애생활인들을 폭행하



국가인권위원회회 전경.

고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부, 장애인 미고용 업주 부담금 ‘인상’

월 79만→90만원, 정부·민간 일자리검색 연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금이 높아지고 정부와 민간의 일자리 검색 시스템이 연계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하 고용부)는 발표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을 1인당 월 79만

5천원에서 90만3천원으로 인상한다”고 6월 30일(목) 밝혔다.

고용부는 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도 연 1회에 2회로 늘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7월부터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정부의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기존의 워크넷과 민간 취업포털 3개사(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수도권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고용부는 워크넷에서 볼 수 있는 하루평균 구인 정보가 10만건에서 20만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

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아울러 구직자가 200만원 한도로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정부가 훈련비의 80%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가 비정규직, 이직 예정 재직자, 무급 휴직자로 확대된다.

9월부터는 쿼서비스 기사,택배업무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

해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지난해 1만9천명에서 올해 3만2천명으로 늘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률 0% 기업 953곳 ‘충격’

고용부, ‘장애인고용 저조 민간기업’ 발표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인 기업이 무려 953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7월 14일(목)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민간기업 중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2.3%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업 1357곳을 발표했다.

의무고용률이 현저히 미달하는 기업이란 1.3% 미만의 의무고용률을 보이는 기업을 말한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률이 0.5~1%미만인 기업이 25곳, 0.5% 미만인 기업은 50 곳이다. 장애인고용률이 0%인 기업도 삼아제약, 대광기업(주) 등 953 곳이나 됐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이 0%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주)CPL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장애인.

953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미달인원 1인당 월 56만원에서 84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2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2012년부터 최저임금액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100인 이상~200인 미만 기업은 2013

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총 8431곳으로 이중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은 54%인 4525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을 69%이상 고용한 기업은 2002곳으로 24%를 차지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전국 47개 대학 장애학생 827명 ‘수시모집’

대교협, ‘2012학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 발표

강남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등 전국의 47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가 2012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827명의 장애 대학생을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 중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196개 대학의

‘201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을 1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2학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부문에서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47개 대학에서 827명을 모집한다.

학교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강남대학교는 21명, 건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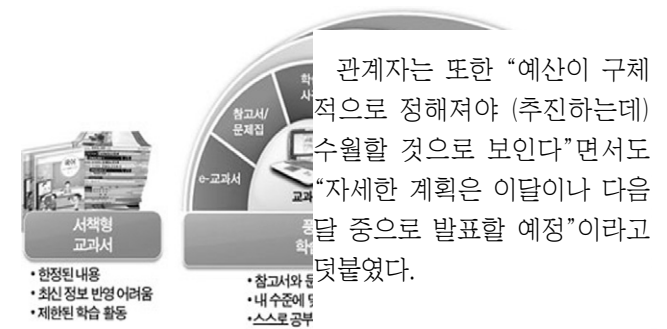
25명, 명지대학교 41명, 나사렛대학교 66명, 공주대학교 60명, 춘천교육대학교 5명 등이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인터넷이나 대학 창구 등을 통해서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 일정과 방법으로 받는다.

전형유형과 모집단위에 따라 원서접수 기간 및 대학별 고사 등의 일정을 서로 다르게 실시하는 대학도 있어 각 대학의 원서접수 일정과 전형일정을 살펴봐야 한다. <출처-에이블뉴스>

장애학생 ‘스마트교육’ 학습모델 등 개발

추진 전략에 포함··교과부, 이르면 이달 중 발표



< 디지털교과서 개념도 >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디지털교과서 개념도 캡처.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을 위한 콘텐츠 및 학습모델 개발 계획이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29일(수) 서책형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 온라인 수업 활성화, 온라인을 통한 학습 진단·처방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들도 오는 2015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한 ‘스마트교육’을 받게 된다.

스마트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체제,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소질이나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및

관계자는 또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추진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세한 계획은 이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안에는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콘텐츠 및 학습모델 개발이 포함돼 있다.

특히 모든 교과서의 서책형 교과서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로 전환된다. 디지털교과서는 PC나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 모든 단말기를 통해 교육내용과 학습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등의 기능을 연계한 교과서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스마트교육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 추진하고 그 후에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 각 업체들의 제품 호환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복지공무원 2014년까지 ‘7000명’ 확충”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단계적으로 7000명 늘어난다.

이는 작년 6월 말 기준 전국 사회복지 공무원 수 2만2461명을 기준으로 약 31% 증원되는 것이다. 또 자활근로 사업 등 156개에 달하는 정부 복지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7월 13일(수)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7000명 늘리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올해 1060명을 시

당·정, 13일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확정 발표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2배’ …2400억원 투입

작으로 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늘릴 계획이다.

새로 총원되는 7000명 중 4400명은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며, 1800명은 기존 행정직 지원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800명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두배 확대된다. 그동안 동 단위에서는 복지 공무원 1명이 평균 280가구를 담당하고 있어, 개별 방문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어

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국고 16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4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을 위해 중복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을 156개 선정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없도록 손질한다. 예컨대 복지부에서 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국토부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는 방식이다.

특히 복지사업별로 41개나 되는 혜택기준을 소득인정액이나 최저생계비·전국 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사업진행에 혼선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행안부의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운영하고, 정보연계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사업은 복지부에서 일자리사업은 고용부에서 총괄·조정 역할을 각각 맡아 복지와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 실장은 “복지담당 공무원이 늘면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수혜자의 혼란을 방지해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국무회의나 올 초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오찬 등을 통해 복지인력 확충을 여러 차례 지시했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민·관 합동전담반(TF)을 구성하고 지자체 현장실태조사를 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증가

상반기 인증 46건…꾸준히 증가 추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7월 19일(화) 상반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실적’이 46건으로 작년 한해동안 인증 받은 45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행 4년차로 접어드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시행초기인 2008년 4건에서 작년에는 4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작년 상반기 1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시설의 인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받은 시설물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시설이고 민간시설은 전체 113건수에 14%(16건) 수준에



인천어린이 과학관의 내부 모습.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쿠션을 설치해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시설도 생활환경 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경감, 건축기준 완화, 입찰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환경 인증은 예비인증(시설물 설계단계)과 본인증(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으로 나뉘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정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제정

대상, 장애1급…급여,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정부는 7월 19일(화)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지

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우선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는 6세 이상의 장애 1급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활동지원급여에 따른 장애 심

사는 모든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낮은 장애인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활동지원등급이 심의된다. 활동지원급여 자격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년, 연속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인정받으면 2회부터 3년이다. 단, 대상자의 신체·정신 기능의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활동보조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제공하며, 방문목욕은 1급 요양보호사가,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 일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공한다.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수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는 업무는 장애

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의 지원이나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내용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다.

이밖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돼 있는 사람 또는 지역가입자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하고 있다. 이는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라 필요한 사안으로 시행령에 포함됐다

〈출처·에이블뉴스〉

‘제12회 장애인영화제’ 출품작 공모

이달 30일까지...영화제는 11월 7일 개최

장애인영화제 조직위원회(PDFF)가 오는 7월 30일(토)까지 ‘제12회 장애인영화제’ 출품작을 공모한다.

출품작은 장애인이 제작에 참여해 만든 영화나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소재로 만든 영화로 지

난 2008년 1월 이후 제작된 작품이면 모두 가능하다.

출품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www.pdf.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영상, 시나리오, 프리뷰 파일, 스틸 컷 등을 첨부해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해 접수하면 된다. 단 작품은 고화질 DVD로 레코딩한 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해 총 8편의 작품을 7개 부분으로 나눠 시상한다. 대상·금상·은상·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과 함께 상장·트로피가 각각 수여된다.

이밖에도 작품상·시나리오

상·감독상 수상자에게도 상금과 트로피가 지급된다. 출품된 모든 작품은 장애인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된다.

심사는 영화제 기간 중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며, 심사결과는 장애인영화제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한편 제12회 장애인영화제는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동안 개최된다.(장소 미정)



제12회 장애인영화제 출품작 공모 포스터. ©장애인영화제 조직위원회)

※우편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3동 289-20 보라빌딩 4층

장애인영화제 사무국 앞(우134-834)

문의: 장애인영화제 사무국(02-461-2684, pdflove@hanmail.net)

‘제6회 장애인문화예술대상’ 후보자 모집

음악·문화 등 4개 부문...오는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집행위원회가 오는 8월 31일(수)까지 ‘제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문화 예술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예술적 가치를 승화 발전시키고 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장애인문화 예술 분야를 혁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패러다임을 제시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모집 부문은 음악(연주, 성악 등), 미술(공예, 동·서양화 등), 대중/다중예술(가수, 연극인, 연기), 문화(시, 수필, 소설 등) 등 총 4개다.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후보자 모집 포스터.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후보자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bluesky82.org)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공적서 및 추천서와 경력증명서 △저서, 논문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집행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제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은 오는 10월 26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우편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타워 1007호(02-859-8288)

〈출처-에이블뉴스〉

평창, ‘2018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문광부, ‘장애인 동계 훈련장’ 건립 추진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 올림픽(장애인동계올림픽)’ 개최지의 꿈을 달성했다.

평창은 지난 7월 6일(수)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18년 제23회 동계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총 95표 중 과반수 48를 훨씬 넘는 63표를 획득해 경쟁 후보 도시인 독일 뮌헨(25표)과 프랑스 안시(7표)를 크게 따돌리고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처음 참

가한 이후 70년 만에 안방에서 지구촌의 겨울 대축제를 치르게 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은 7년 뒤인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6일 동안 펼쳐지며 장애인들을 위한 동계패럴림픽은 한달 뒤인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한편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르는 것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1972년 삿포로 대회와 1998년 나가노 대회에 이어 세 번째이며,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하 문광부)는 ‘2018년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내 ‘장애인 동계시설 훈련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장은 2012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13년 시설 설계 및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14 착공에 들어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하 1층과 지상 1, 2층 규모이며 휠체어컬링·아이스슬레지하키 훈련장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7월 6일(현지시간) 남아공 더반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AP통신

KBS, ‘장애인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KBS(사장 김인규)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7월 18일(월)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한 장애인의 방송 참여 배제 혹은 차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 조장 표현 배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 통합 기여 등에 노력할 것

이 명시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해 확대 복사대본을 준비하고 지적 장애인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대본을 만들도록 했다. 또 도우미를 배치해 이동이나 의사소통을 돕도록 했다.

특정 장애부위의 집중, 반복적인 노출은 장애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

어 삼간다. 장애인이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장애를 비하하는 언어 사용에도 주의한다.

이밖에 장애인이 가해자나 피해자인 사건, 사고 보도에서는 장애와 해당 사건,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특정 장애를 해당 사건, 사고의 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새롭게 시작한 지장협, 장애인계 중심으로 우뚝 서”

김정록 회장, 본지 인터뷰 통해 ‘취임 2년 소회’ 밝혀… ‘양경자 사태’ 기억 남아
‘미래동력’ 창출 시급…남은 2년 임기, ‘미래’ 위해 올인 할 터



‘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선포하며 지난 2009년 7월 15일 취임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이 어느덧 ‘김정록 중앙회장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 15일(금) 이룸센터 회장실에서 ‘취임 2주년 인터뷰’를 가지며, 지난 2주년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지체장애인협회의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벌써 2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제가 공약했던

다짐과 약속을 얼마나 이루어냈을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한 편으로는 독자 여러분의 냉정한 평가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

선을 다해왔다고 스스로 자부해 봅니다.

지난 2년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Q)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단어가 절로 나오는 2년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지난 2년을 회고하니 ‘다사

다난(多事多難)’이란 단어가 절로 나오네요(웃음). ‘장애인연금 문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태’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의 광경이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년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새롭게 변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는 협회로 우뚝 서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009년 8월, 과거 지장협의 허물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협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지장협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경주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미래지향적 협회 구축, 장애인정치세력화를 골자로 하는 ‘新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결성된 전국의 ‘장애인 매니페스토 추진단’의 노력은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장협의 많은 구성원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하는 쾌거를 달성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지진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던 칠레를 위해 전국의 회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다. 이는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만의 대상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대상이 아닌 누군가의 아픔도 함께 나누는 것을 전 세계에 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태’ 등 장애계 현안과 관련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때론 강력한 투쟁으로 대처했고 이에 ‘양경자 이사장’이 자진사퇴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국민기업인 KT와 ‘MOU’를 체결했고,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등의 행사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장협의 위상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는 저와 협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Q) 회장님 말씀처럼 지난 2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중에 특별히 기억나거나

Q) 회장님께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취임 2주년을 앞둔 지금, 새보람 독자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취임 후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새보람 독자 여러분을 비롯해 한

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의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혹여 피해가 있는 독자분들이 계시지 걱정이 됩니다. 모쪼록 장마철 평안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2009년 7월, 한국



2009년 7월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취임식.



2009년 8월 대구에서 개최된 ‘자정결의대회’.



2010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위한 결의대회’에서의 투쟁발언 모습.



‘칠레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



KT와의 ‘MOU’ 체결식.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질문을 듣자마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가 바로 떠오릅니다. 이는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을 무시한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항거였습니다.

투쟁을 시작한 6월 4일부터 양경자 이사장이 사퇴를 발표한 11월 18일까지 6개월여동안 너무도 길었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장협을 필두로 국내 50개가 넘는 장애단체는 한마음으로 연대해 비대위를 결성, 정부의 잘못된 인사(人事)를 바로 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했고, 결국 ‘위대한 승리’를 일구어냈습니다.

또한 그것은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 동지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을 보내준 480만의 지지자가 없었더라면 이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480만 장애인이 한 마음

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한국장애투쟁의 역사’를 다시 쓴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Q) 반면 아쉬운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산적해 있는 장애계 현안 중 대부분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연구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대하는 만큼 못 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전국의 장애인들을 만나 뵙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미처 가지 못한 지역도 아직 많이 있고 꼭 만나 봐야 할 분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는 보

다 많은 지역의 장애인들을 만나 뵙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Q)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향후 2년의 계획에 대해 독자들께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밝혀 주시겠습니까?

A) 앞으로 남은 2년여의 임기 동안 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미래의 ‘동력’으로 삼고, 협회의 핵심 사업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역인권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조직,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장협의 힘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는 2012년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에서 더욱 강력해진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장협이 앞장서 노력할 것이며, ‘아·태 장애인 10년’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지장협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모든 목표들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보람 독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모든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새보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즐락동기(喼啄同機)’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알 속의 병아리가 성숙하여 바야흐로 바깥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부리로 알 벽을 찌는 것을 일러 ‘즐(喼)’이라 하고, 동시에 그 알을 내내 품던 어미닭이 바깥에서 알 벽을 쪼아 알 깨는 것을 돕는 행위를 ‘탁(啄)’이라고 합니다.

즐락의 동기(同機)란 바로 알

안의 병아리 부리와 알 밖의 어미 닭 부리가 찌는 시점이 일치하는 순간을 말하며, 이때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바깥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협회가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고 위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과 제가 뜻을 함께해야 합니다. 알속의 병아리와 어미닭처럼 서로 협력해 기존의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미래로 향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지장협으로 나가는 데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회원 여러분을 섬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의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이끌어 나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보람 독자 여러분을 비롯해 전국 지장협 회원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록 중앙회장 동정(2009年 7月~2011年 7月)■

년 / 월	활동내용	년 / 월	활동내용	년 / 월	활동내용
2009년 7월	제6대 중앙회장 취임	2010년 4월	장애인의 날 기념 LG VS 넥센전 시타 장애인 매니페스토 발대식	2011년 1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 상임대표 취임 중국 하북성잔질인연합회 임원진 방문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
8월	지도자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5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민원상담실무자교육	2월	제10기 신임 지회장 리더쉽 교육
9월	전국 산하협회 순시 장애예산확보 집회	6월	‘공단 양경자 사퇴’ 관련 비대위 구성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장애인 전문상담요원 권역별 실무자 교육	3월	정기 대의원총회 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10월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7월	장애인 권리를 위한 정책결의대회 안상수 대표 면담(공단 사퇴 관련)	4월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장애인의 날 기념식)
11월	장애인연금 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8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퇴임 오찬 장애계 국회의원 간담회	5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국민연금공단과 MOU 체결
12월	전국장애인자립장경영자연수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학금 전달식 사랑의 쌀 나누기	9월	장애인 국제학술 심포지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간담회	6월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태국 장애인단체 방문
2010년 1월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	10월	전국중증장애인초청대회 공단 사퇴 관련 단식투쟁 돌입 솔로탈출 119	7월	지역인권위원회 발족
2월	장애인 의회정치 아카데미	11월	KT와 MOU 체결 전국지체장애인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학금 전달식 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비대위 해산)		
3월	칠레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 장애인 매니페스토 발대식	12월	아·태 장애인 10년 관련 국제세미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간담회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 방안 공청회

장애인야학 활성화 방안 모색...“장애인평생교육 일관된 전달체계 필요”

장애인야학들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6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성인 교육지원 및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용욱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 박사가 기조강연에 나서 ‘장애인야학의 특수교육적 함의’에 대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주제발표 뒤에는 김은주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 강순원 한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장석문 대전맹학교 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장애성인의 교육지원 및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들이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내실화해야

발제자로 나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현재 약 29개소의 장애인야학 중 15개소만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있다.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야학은 여전히 과거의 장애인야학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많은 장애인야학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을 충족하면 등록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 방안' 공청회. ©에이블뉴스

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 조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만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활성화하려면 이미 등록된 장애인야학의 경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등록을 하지 못한 장애인야학은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야학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경북과 전남 등 일부 시·도 지역의 경우 교육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김은주 특수교육과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해왔던 시설이 좀 더 내실화돼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비장애인보다 더욱 장기적인 측면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일관된 전

달체계 필요

김 사무처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종합적인 평생교육시설로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장애인야학뿐만 아니라 대학의 평생교육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 이뤄지고 있지만 운영기관의 성격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 중앙부처의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무부처가 다르고 예산의 지원 기준이나 프로그램 관리 기준 등도 다르다”며 “장애인 평생교육도 일반 평생교육 전달체계처럼 중앙-시·도-시·군·구 수준의 일관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사무처장은 “예를 들어 경상남도 장애인평생학습관 모형을 살펴보면 지역 수준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는 국립특수교육원 부설기관으로 (가칭)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며 “시·도 수준의 경우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와 여건이 성숙된 곳이라면 별도의 평생학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시·군·구 수준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거나, 이미 지역사회에서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위탁·지정해 개인별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학교 강순원 교수는 “지역이 장애인평생교육을 책임지게 한다는 점에서 보고서가 예시한 경상남도 장애인평생학습관 모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 기존의 일반 평생학습관 역시 모양은 근사하나 실효가 거의없어 한 두 명의 계약직 평생교육사가 운영하는 수준이라는 점과 주로 평생학습도시 관련 업무만을 요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 학교에서의 통합교육 지향만큼이나 장애인평생교육의 통합적 운영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동조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김은주 특수교육과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다양한 측면으로 봐야 된다. 장애유형별 지원 내용이 다를 것이고, 또 평생교육을 연방 중심으로 봐야 될 지 특수학교와 특수지원센터, 더 바람직한 것은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다. 큰 틀로 보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평생학습계좌제도 및 학점은행제도 도입

김 사무처장은 “2009년 5월에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2011년부터 학습계좌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계좌제도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누적해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유용한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한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도의 경우 학습자가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비용은 학습 공급기관이 정부로부터 직접 받도록 되어 있다”며 “평생교육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장애인 평생학습계좌제를 별도로 마련해 기존의 평생학습계좌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면서 영국의 비용 지원 옵션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개인별 학습비용 지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의 비용 지급 방식인 바우처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며 “2백4십여만명에 이르는 잠재적 평생교육 수요자를 평생교육 시장으로 못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평생교육을 구매하려는 수요자가 없어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공급기관도 생기지 않고 있다. 장애성인 학습자의 잠재된 요구를 분출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학습계좌제나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는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상임이사는 “평생학습계좌제도 및 학점은행제도 도입은 ‘교육’을 철저히 상품화하고 시장화해 이윤창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교육본질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출처-에이블뉴스〉

2011

WAKE UP!!

전국장애인단체 활동가대회

◆ 대회개요

- 대회주제 : ‘감성’ Wake up!! (조심의 감성을 기억하기)
- 일시 : 2011. 9. 20(화) - 2011. 9. 22(목)
- 장소 :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제주시 애월읍 소재)
- 참가대상 및 규모 : 전국장애인단체 활동가, 진행요원, 자원봉사자 등 약 200여명

◆ 주요내용

- 주제강연
- 모듈별 토론
- 제주테마기행 : 문화명소 탐방, 체험기행 등
- 활동가 교류의 시간



서울, 8월부터 활동지원 최대 360시간

중증장애인 1일 최대 7.7시간→12시간 확대



오는 8월부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시)에 거주하는 최종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최대 360시간까지 받게 된다.

시는 7월 1일(금) 최대 7.7시간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1일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계획은 지난 4월 발표된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종합시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제공 시간 이외 지원해왔던 50~8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홀로 사는 최종중증장애인은 1일 최대 7.7시간, 월 230시간에서 1일 최대 12시간, 월 36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특히 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적·자폐성장애 등 2급 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유관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세부시행사항 협의가 끝나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홀로 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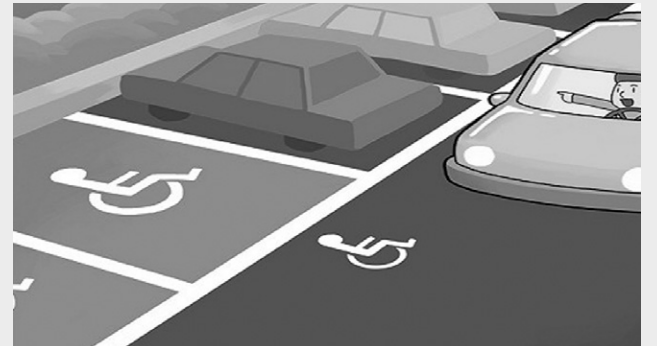
한영희 장애인복지과장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추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서울시민의 일원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활동보조시간 부족 등으로 생활에 제약を受け 받아 힘들어 하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장애인 복지를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언론문의처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3707-8476

〈출처-에이블뉴스〉

음성, '장애인주차구역 표시' 개선 추진



음성군이 올 상반기 군민 우수 제안으로 뽑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표시 개선안 그림.

충북 음성군이 멀리서 잘 보이지 않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개선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2011년 상반기 군정발전시책 및 군민제안 공모' 결과에 따라 우수 제안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 개선안'을 채택, 군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6월 29일(수)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 개선안'에는 멀리선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가 보이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주차구역선 밖에서도 장애

인 표시가 잘 보이게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선안은 감곡면 월정리의 김후식 씨가 제안했다.

장애인들은 잘 보이지 않는 장애인구역표시때문에 주차시점에 와서야 확인하고 다시 차량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예산확보를 한 뒤 군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에이블뉴스〉

경기, '2011 보조기구 공모전' 작품 접수

8월 5일까지...대상에 상금 1,000만 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센터장 오길승, 이하 센터)와 KINTEX는 장애인과 노인의 위한 다양한 보조기구의 개발과 국산화를 목적으로 '2011 보조기구공모전(www.atidea.or.kr)'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기획·제작 부문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보조기구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

출하거나, 생산·제작까지 가능한 수준의 기획서를 작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또한 전공, 나이 등의 참여제한도 전혀 없다.

상금은 총 2,0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현대자동차그룹 대표상과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시상작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KINTEX에서 개최되는 '2011 시니어 & 장애



'2011 보조기구 공모전' 포스터.©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인 엑스포(SENDEX)' 행사장 내 특별전시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 ☎ 031-295-7363〉

대전, 장애인·노약자 '전용 민원실' 마련



대전광역시청에 마련된 '장애인·노약자 전용 민원실' 모습.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 이하 시)는 그동안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각종의 사무실을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기 위해 '장애인·노약자 전용 민원실'을 마련, 지난 6월 23일(목)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청 1층 안내데스크 옆에 개설되는 전용 민원실에서는 시청을 찾는 장애인과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고 담당부서의 직원이 민원인에게 내려와 상담하고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사무실을 찾아가는 불편이 해소되며, 민

원처리 시간도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민원실 이용방법은 1층 안내데스크의 근무자에게 민원내용을 신청하면 담당부서 직원을 호출해 주고, 담당자는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 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전용 민원실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음은 물론,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도 갖춰져 있다.

〈문의 : 대전광역시 시민협력과 042-600-3383〉

청주, 2014년까지 '14대 복지과제' 추진

충청북도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 5기 사회 복지 비전'을 수립했다고 7월 7일(목) 밝혔다.

'건강한 복지, 따뜻한 청주'라는 이름의 복지비전은 교육, 보건건강, 사회서비스, 일자리, 문화 여가, 주거, 기반시설 등 '7개 분야'와 '14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핵심 과제는 정신보건 예방

교육, 방학교실 운영,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틈새 돌봄 서비스,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민관 일자리 종합관리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자활 인큐베이팅사업 등이다.

또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 사랑의 문화 티켓, 최저.적정 주거 기준 마련, 안정적 주거공간 확보 등도 생애주기별로 적용되는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공동간병실을 운영하거나 병원 사회사업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며 사랑의 문화티켓은 시가 기획한 공연 관람권의 10%를 저소득층에게 배부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관 협력으로 사회복지비전을 도출했으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을 민선 5기 기간인 2014년까지 전개할 계획이다.

전북,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정

‘종합적 장애인가족 지원시책’ 마련 명시

전북 지역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 장애인가족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6월 20일(월) 본회의를 갖고, 최진호 의원(산업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북 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전북도지사의 책무로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과 함께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돌봄사업,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상담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가 의결된 후 최진호 전북

도의회 의원은 “장애인가족들은 기관 간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시기에 적절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제도화돼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광주, 장애인커피전문점 ‘이룸카페’ 오픈



장애인커피전문점 ‘이룸카페’ 모습.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이하 시)가 최근 시청 1층 로비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이룸카페’를 지난달 27일(월) 개소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북구 장애인직업재활

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이룸카페’에는 7명의 장애인이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직접 주스와 커피, 빵 등을 제공해 민원인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김모(45·여)씨는 4일 “청사 내 커피전문점이 들어서면서 점심시간에 짬을 내 커피 한잔하는 여유가 생겼다”며 “시청에서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었던 민원인들도 커피전문점을 반긴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 커피전문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 시장은 “민원인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장애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 5개 구청과 경찰청, 기업 내에도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성, 독거노인에 ‘무료세탁’ 봉사

대전광역시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혼자하기 힘든 빨래를 무료로 대신해주는 ‘클린 무료세탁 사랑나눔 봉사’를 시행한다고 지난 6월 21일(화) 밝혔다.

유성구는 봉사 시행을 위해 한국세탁업중앙회 대전시지회와 협조해 참여 희망업소를 파악해 16개 세탁소가 참여하게 됐고, 지난 4월부터 봉사 대상 노인을 파악해 우선 30여 세대를 선정했다.

무료세탁 봉사는 자원봉사자가 세탁물이 있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수거한 뒤 봉사 참여 세탁업소에 세탁을 맡기고 세탁이 끝나면 이를 다시 자원봉사자 세탁물을 받아 독거노인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는 적극적인 자원봉사와 참여 세탁소 확대를 위해 참여 세탁소에 50ℓ 쓰레기 봉투를 분기 1회에 20매를 지원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구청장 표창도 수

여할 계획이다.

또 구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를 추진 100시간 이상 봉사자에 마일리지증을 발급해줘 오월드, 평송수련원, 선사박물관 등 시, 구 시설물 이용 시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세탁소, 자원봉사자와 무료세탁 봉사가 필요한 자는 구청 위생과 공중위생담당(042-611-2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 ‘찾아가는 결핵검진팀’ 운영



결핵검진팀의 이동검진차량 모습.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 이하 시)가 결핵의 조기발견 및 퇴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올해 노숙인·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1만3500여 명과 학생 및 집단시설 거주자 17만3000여 명 등 총18만6500여 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6월 27일(월)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보건소 주관의 결핵검진, 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으로 노인요양원·복지관·재활원·장애인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결핵검진을 하는 ‘취약계층 ONE-STOP 결핵검진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결핵검진팀은 이동검진차량에 검진대상지역 보건소

소속 결핵진료의사나 시 결핵관리의를 비롯해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의료팀이 직접 찾아가는 진료에 나선다.

특히 결핵검진팀은 문진 및 혈압 등을 측정하는 ‘기초검사’부터 흉부엑스선 측정 및 객담검사 등을 통한 ‘결핵검사’까지 ONE-STOP 서비스를 펼치고 필요할 경우 골밀도검사, 체성분 분석, B형간염검사 등을 할 계획이다.

진료 후, 엑스선·객담검사 등 결핵검사 검진결과를 현장에서 통보하며, 검사결과 결핵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는 해당 보건소에 통보해 2차 검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진주, ‘장애인 전문 치과’ 개설

경상남도(도지사 김두관, 이하 도)에 여성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에 이어 ‘장애인 전문 치과’가 생겼다.

도는 7월 6일(수) 진주의료원에 ‘장애인 전문치과’를 설치하고 김두관 도지사와 강구현 진주의료원장, 김일웅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구강위생 관리를 하기가 어렵고 병원진료를 받기도 힘들어 치과 질환을 방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진료가 힘들고 전신마

취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진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치과치료가 필요한 도내 장애인을 위해 지난 5월, 진주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개설했다.

장애인 전문 치과에는 의사 1명과 치위생사 2명이 배치됐으며, 2억원을 투자해 유니체어와 디지털센서 등의 고급장비도 갖췄다.

한편 도는 오는 2014년까지 창원, 김해, 거제, 양산 등에도 장애인 전문치과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미국, 의료지원 ‘메디케이드’ 삭감 파장

USA 투데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직격타”

미국의 많은 주정부들이 재정 난 타개를 위해 장애인 등을 위한 빈곤층 의료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의사와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대폭 삭감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의 한 언론사인 ‘유에스 에이(USA) 투데이’는 지난 7월 6일(수, 한국시간) 주정부들의 “메디케이드 비용 삭감이 의사와 병원들로 하여금 메디케이드 탈퇴를 초래, 빈곤층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가 더 힘든 상황이 조성되고 있으며 건강보험회사

들로 하여금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등 15개 이상의 주정부들이 지난 4월부터 또는 7월부터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의사와 병원들에 지급하는 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또한 콜로라도주는 메디케이드에 참여한 의사와 병원에 대한 보상액을 7월부터 0.75% 삭감했고, 플로리다주는 메디케이드 참여 병원에 대한 보상액을 12%, 텍사스주는 병원에 대한

보상액을 8% 삭감했다.

이밖에 네브래스카, 오리건, 사우스 다코타,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뉴햄프셔, 사우스 다코타, 노스 캐롤라이나주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내 5천여만명에 달하는 빈곤층 및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중 평균 57% 정도를 지원한다.



미국 건강보험개혁안에 대한 주민투표 홍보물.©EPA연합뉴스

연방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비용은 2009년 기준으로 3천660억달러에 달한다.

주정부들은 주 재정에서 메디케이드 지출 예산이 가장 많거나 교육예산 다음으로 많아 극심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이의 예산 삭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최근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보상액 삭감에 따라 많은 의사와 병원들이 실제로 메디케이드에서 탈퇴하고 있어 빈곤층들은 진료를 받을 병원과 의사를 찾기 더욱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스페인, 양다리 동시 이식수술 시행

세계 최초...절단장애인에 ‘새로운 희망’ 기대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양다리 이식수술’이 시행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 보건당국을 인용해 지난 7월 11일(월, 한국시간) 전했다. 발렌시아시(市) 라페병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 환자에게 두 다리 동시 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밝혔다.

수술은 지난 10일(일) 밤 시작돼 13~1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뼈들을 연결하고 동맥과 정맥,

근육과 신경을 잇는 긴 수술이었다. 수술을 받은 남자 환자는 사고로 양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했으며 의족 착용이 부적합해 휠체어에 의존해왔다.

이번 이식수술을 집도한 카바다스 박사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수술 경과와 결과에 대해선 최소한 48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며 “양다리 이식수술은 워낙 복잡한 데다 이식된 양다리는 평생 온 몸을 지탱해줘야 하는 신체 부위

라서 선별리 수술 결과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이레 파힌 스페인 보건부장관은 이번 수술이 사지 절단 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전 세계에 이 나라를 연대정신의 모범으로 각인시켰다”며 기증자 가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수술을 집도한 카바다스 박사는 과거 스페인에서 획기적인 장기이식수술을 여러 차례 성공시킨 유명 외과 의사다.

중국, 장애인에 12년 무상교육 추진

중국 정부가 장애인에 대해 ‘12년간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6월 9일(목)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2.5 계획, 2011~2015년)’에 따라, 비장애인의 경우 무상교육이 9년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현재 소학교(초등학교) 6년, 초중학교(중학교) 3년, 고등학교(고등학교) 3

년에 이은 대학교육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무원은 장애인이 희망하면 고등학교 대신 직업학교(2~3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직업학교 학비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장애인이 의무교육을 통해 자립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지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히말라야 등정?”

‘사이버 의복’ 입고 등산하는 장애인 화제



하반신 마비 장애인에게 희소식이 날아왔다. 장애인의 팔·다리 동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파워를 10배 가량 키워주는 로봇 의복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 메일’은 지난 7월 2일(토, 한국

시간)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일본인 우찌다 세이지(49)가 곧 인공지능 장치가 부착된 ‘사이버 의복’을 입고 프랑스의 ‘몽 생 미셸’ 산을 오른다고 보도했다.

몽 생 미셸 산은 노르망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명한 유적지이지만, 둘레 900m, 높이 78.6m에 불과한 야트막한 산이다. 그러나 우찌다에게는 이번 등정 도전이

장애인이 된 후 ‘제2의 인생’을 열기 위한 첫발이다.

이슈의 주인공인 우찌다 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28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물론 그의 이런 야심찬 도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인공두뇌 기술이다. 그는 이번에 ‘하이브리드 보조 팔다리(Hybrid Assisted Limb, 약칭 HAL)’가 부착된 ‘로봇 의복’을 입고 등정에 나서게 된다. 아직 초창기 기술이라 이번엔 몽 생 미셸에 첫발을 딛게 되지만, 이후 비약적 기술 진보가 이뤄지면 그가 히말라야

고봉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 사이버 의복은 도쿄 근교의 츠쿠바 대학 산카이 요시유키 교수가 개발해 일본 사이버다인 사가 최근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HAL 부착 의복은 이 옷을 입은 사람의 피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생체신호를 탐지할 수 있게 한다.

사람이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신경신호가 뇌로부터 근육으로 보내져 결과적으로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데 로봇 의복은 이런 과정을 도와 줄 뿐만 아니라 파워까지 10배나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름 건강관리 방법 제대로 알고 있나요?”

연일 계속됐던 폭우가 그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다. 4계절 마찬가지로 일사병, 냉방병, 식중독 등이 만연한 여름은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계절이다. 여름에는 땀의 증발이 원활하지 못해 체온조절이 어렵고, 장마에 의해 세균이 번식하는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무덥고 번덕스러운 여름철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름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여름 건강관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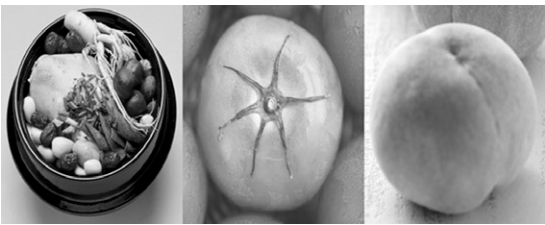
“내 체질에 맞는 계절 음식을 먹자!”

1.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과일.(왼쪽부터 수박, 참외, 멜론)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좋은 음식.(왼쪽부터 삼계탕, 토마토, 복숭아)



여름에는 먹을 것들이 참 많다. 여름 제철 과일의 종류도 다양하고, 여름 별미도 있다.

특히 여름 제철과일을 비롯해 음식을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섭취한다면 여름 건강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은 수박, 참외, 멜론, 녹차 같이 수분이 많

은 차가운 성질의 과일들이 적합하고, 해산물을 일주일에 한 번정도 먹어주는 것도 좋다.

반대로 몸이 차가운 자는 복숭아나 자두, 토마토 등 따뜻한 성질의 과일과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몸이 차가운 자는 소화기능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름 건강관리 방법

“끓여먹기, 익혀먹기의 생활화”

3.



여름철에는 세균번식에 의한 식중독 위험이 크므로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을 끓이고 익혀먹어야 한다.

높은 온도로 음식이 변질되기 쉬운 여름에는 무엇이든 끓이고 익혀먹는 것을 습관화 해야 한다. 여름에는 우리가 늘 마시는 ‘물’조차도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평소에 마트나 편의

점에서 구입하는 생수는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세균이 번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름에는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기보다는 집에서 보리차, 옥수수차, 녹차 등을 끓여서 마시는 게 좋다.

음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을 익혀 먹어야 하는데, 74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야 한다. 세균은 4도~60도 사이에서 가장 잘 번식한다.

음식물을 보관할 때에는 4도 이하 혹은 60도 이상으로 보관해야 한다.

여름 건강관리 방법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라!”

2.



냉방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내부의 온도 차이를 5도 이상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더위에 의한 일사병뿐만 아니라 지나친 냉방으로 인한 ‘냉방병’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대인의 새로운 질병이라고 불리우는 ‘냉방병’은 굳이 실내 온도가 낮아서라기보다는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커서 생기는 병이다.

따라서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며, 냉방이 되고 있는 실내에 장시간 머물 때는 얇은 옷을 입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매시간마다 5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다.

여름 건강관리 방법

“몸 영양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자!”

4.

여름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활동량과 체력소모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적시에 식사를 가능하다면 보양음식이나 건강 보조식품을 통해 각별히 몸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여름철은 더위로 인해 입맛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아침에 일일이 밥

을 먹기 힘들다면 죽이나 과일로 대신하는 등 영양 섭취에 각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더운 여름일수록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챙겨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더위에게 ‘백기’를 드는 것과 같다.

여름 건강관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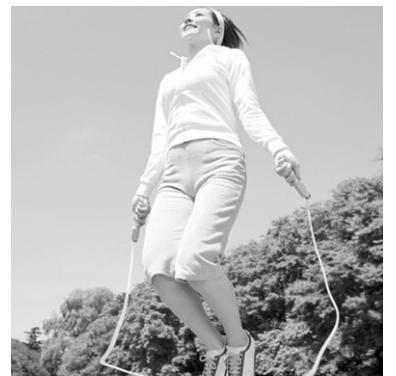
“가벼운 운동이라도 게을리 하지 말 것!”

5.

앞서 설명했듯이 여름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 꾸준히 체력단련을 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운동을 등한시 하게 된다.

물론 온도와 직사광선이 높은 오전 11시~오후 2시 사이에는 야외에서의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지만, 바깥 활동을 하기에 적당한 온도가 되는 저녁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산책을 비롯한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 적당한 운동은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일사병이나 냉방병을 비롯한 여름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칼럼

윤석연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전문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전광역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전광역시지부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이르게 시작된 장마비속에서도 장애인들의 호응과 참여율은 예년보다 높았으며, 점역교정, 양장, 시각디자인 등을 비롯한 23개 직종에서 256명의 장애인들이 각자의 기량을 발휘하여 열띤 경기를 벌인 결과 59명이 입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역 내 우수한 장애인 기능인을 발굴하고 기능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직업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의 기능 및 직업적 능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장애인의 기능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대회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토대로 사회 속으로 한발 내딛고,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민·관·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장애유형별·특성별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능력을 최

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실행한다면 장애인이 국가생산력 증대에 많은 부분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도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의 능력에 기초한 고용을 실현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전국의 500여만 장애인은 지역 사회 내에서의 당당한 삶을 꿈꾸고 실현하고자 오늘

도 자신의 위치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장애인단체나 복지기관에서도 나름의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서 완전해지면 우리 사회는 보다 살기 좋은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생산적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그에 맞춰 장애인들 스스로가 능력을 갖는데 피나는 노력을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받아들이기 충분한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올바른 인식을 통해 사회전반의 그릇된 편견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이를 위해 협회차원에서의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윤석연 협회장 프로필

- ▲ 1966년 출생(충남 아산)
-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학위 취득)
- ▲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장
- ▲ 現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 ▲ 現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독자투

윤석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직장체험을 통해 얻은 열매

군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학교 3학년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었지만 군 생활 후 1학기동안은 내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생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장체험을 신청하게 되었다. 친한 친구가 이 곳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친구의 소개로 직장체험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말에 “그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첫 직장체험을 하면서 이와 같은 걱정이 기우라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밝고 친

절한 모습과 장애인들의 순수한 모습에 정말 이 곳에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누구보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번 직장체험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술치료 워크숍에 참석하여 장애아동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워크숍에 참석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복지관 직장체험을 통해서 훌륭한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만들고 특히나 스스로가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은데 장애아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다.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장애아동의 장애에 대해 연구하

는 교수님들의 훌륭한 강의도 듣고 장애아동의 미술작품 전시를 보면서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다른 게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장애아동의 작품이 나에게게는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보다 더 훌륭한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장애아동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는데 장애아동들의 음악연주를 들으면서 그들이 6개월 동안 연습한 노력과 순수한 웃음소리가 묘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감동적인 연주를 만들어 낸 것 같다.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특히 장애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고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나에게 이번 3학년



2학기에 얻은 의미 있었던 추억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한 직장체험!”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번 직장체험을 통해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열매를 만

들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이 만들어진 열매를 구경만 하다가 버리지 말고 스스로 소화해 내 인생의 영양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실천하는 노력만이 남은 것 같다.



독자마당

본지에 게재된 글은 지난 2011년 6월 3일(금)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개최된 『2011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의 글짓기 부문에서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이복록(여,51) 씨의 작품으로, 장애인 남편에 대한 사랑과 가족애가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다리 없는 천사 내 남편

이복록 (충남 공주, 고용노동부장관상)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한 남자의 평범한 아내입니다. 글이라 특별할 건 없겠지만 열심히 살아온 남편의 추억을 회상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글로써 잘 표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쌍둥이 남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두공장, 콩나물 공장 등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슨 일이든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비록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배우지 못해 제대로 한글도 깨우치지 못했으나 그런 자신보다는 동생들을 더 걱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배는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동생들의 식사는 거르는 법은 없었으며, 부모님 밑에서 예쁘게 자라야할 동생들이 결혼가정으로 인해 상처나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더욱 사랑하며 열심히 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성인이 되어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978년도 쯤 되었던 같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고,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밥공기 2개, 가진 돈 5 천원...이렇게 소꿉놀이 하듯이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난 했지만 둘 건강하고 젊어서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양계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하루하루 조금씩 돈도 모아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을 출산하고, 2년 뒤에는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가족은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두 아이의 재물에 하루하루가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비록 목장에서 일을 하는 목부 생활이었지만 하루하루



지난 6월 3일(금)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2011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는 이복록 씨.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요. 그러던 중 11년 터울로 늦둥이 딸을 출산을 하게 되었지요. 빠듯한 살림이기는 했으나 하느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예쁘게 낳아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목장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생계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키우기가 빠듯해 남편은 장사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들팍한 남편이기에 믿고 의지하며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하기로 하였습니다.

험난하고 힘든 장사꾼 생활을 시작한 우리는 터미널 근처에 천막을 치고 작은 노점을 차려 닭 꼬치와 봉어빵 등 먹거리 장사였습니다. 어쩌다 한번 쉬는 날이면 남편은 그 마저도 쉬지 못하고 서울로 장사할 재료구입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물건들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남편의 오토바이를 같은 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트럭이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건강하고 멀쩡하던 남편은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느님이 원망스러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니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없더군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이 가중되면서 전 살고 싶은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저 대신 아빠를 지키며 정신 놓고 있는 저까지 위로하며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 딸아이는 이제 막 중학생, 한 참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에 학교가 끝나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와 어린 동생에 귀저기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이고 하며 저 대신 엄마 역할까지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은 정신을 놓고 있었지 뭘니까!

큰 아들이 그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엄마까지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응..!”

“내가 더 잘할게 제발 정신 좀 차려 봐! 응...”

“엄마가 기운내야 아빠도 기운내지!”

그러면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덜컥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도 어린애 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커 버렸나, 하는 생각에 어찌나 미안하던지 아들과 전 꼭 끌어안고 한 참을 통곡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엉망진창 이였습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주변에 모든 것이..

남편은 6개월이란 병원 생활을 정리하고 퇴원을 했지만 절단된 다리의 후유증 때문에 남편은 수시로 고통스러워했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우리 집으로서 매일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가고 큰 딸아이에게 살림을 맡기고 일당이라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등록금이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힘들어도 이렇게 지내는 동안 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대학진학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녀석은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전문대라도 다닐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대견하던

지, 그래서인가 힘든 줄 모르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행복도 아주 잠시 불행은 불행을 몰고 온다고 했나요.

어처구니없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시 동네에 있는 성당 밑에 오목조목 집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곳이 성당 땅이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정말 갈 곳 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동네 어른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얻은 집이 각종 벌레와 쥐가 득실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이라도 마련해 아이들과 남편에게 비, 바람은 막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은 놓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낡은 집이라 그런지 환경이 좋지 않아 가족들의 건강도 나빠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아이는 임파선염으로 조직검사를 했지만 입원은 못하고 통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 또한 몸이 쇠약해지고 자주 감기며 잦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서도 아이들과 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혼자서도 볼 일을 볼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기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몇 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후딱 지나가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고,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라도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게냐고 해서 그동안 모아 두었던 돈과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받아 조그마한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남편도.....

그렇게 생활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쯤... 마치 이렇게 행복한 우리를 질투라도 하듯이 하느님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시각장애인 기초수급자 ‘전재산 기부’ 감동

이덕순옹, 1000만원 기부... “더 어려운 이웃에 써주길”

두 눈의 시력을 잃은 채로 50여년을 살아온 80대 할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천안시 직산을 이덕순(83) 옹은 최근 자신을 돌봐주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진우 씨를 통해 자신의 전 재산인 1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며 기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사회복지사 이 씨는 이 옹의 뜻에 따라 최근 1000만원을 천안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옹이 내놓은 돈은 어렵게 살면서도 자신을 도와준 이웃에게 작은 성의라도 베풀어야겠다는 값진 의미를 지녔다. 불편한 몸애 아들마저 잃고 홀로 살고 있는 이 옹의 수입은 매달 정부에서 지급하는 40여만원의 기초생활비가 전부. 이 옹은 혼자 의식을 해결하기에도 버거운 생활비를 절약해왔고 1000만원이라는 재산을

일궜기 기증한 것이다.

젊은 시절 목수 일을 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렸던 이 옹은 30대 초반 불의의 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나머지 한쪽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35세에 시력을 모두 잃었다. 노환으로 한쪽 귀의 청력도 거의 무너진 상태.

설상가상으로 유일한 혈육으로 의지해왔던 아들마저 2008년 지병으로 세상을 등졌으며 그 후엔 홀로 살아왔다.

이 옹은 “땅 주인의 배려로 비와 눈을 피할 수 있었고 집도 있고 매주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챙겨주는 밑반찬 등 부족한 게 없다”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진우 사회복지사는 “할아버지는 항상 도움만 받는 처지를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며 ‘나도 언젠가는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늘 하셨다”고 전했다

“사랑의 저금통으로 이웃사랑 실천해요”

온양신정중학교, 아산장북에 ‘사랑의 저금통’ 전달



6월 24일 온양신정중학교 측이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아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에서는 지역장애인들을 향한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지난 6월 24일(금), 아산장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후원행사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온양신정중학교(교장 성순택)에서 ‘사랑의 저금통’을 복지관 측에 전달한 것이다.

후원행사연계사업은 학교, 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사랑의 저금통 모금’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실천(후원)하는 행사로, 온양신정중학교는 4년 동안 꾸준히 참가해왔다.

또한 온양신정중학교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약 6주간 전교생 1000여명이 참

여해 충남유일의 휠체어장애인농구단인 아산휠스파워농구단을 위한 지정후원금 모금을 진행해 아산시장애인복지관(문의, 041-545-7727)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학교의 특수교사는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생각해보고 직접 나눔을 실천해 볼 수 있었던 아주 뜻 깊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장북과 함께하는 후원행사 연계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학교, 단체, 기업 등은 아산장북 기획실(담당자 이해철 팀장, 041-545-7727)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2011년 6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지민, 김구환, 김성우, 김정빈,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환경, 남용원, 민속박물관,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서재훈, 손영주, 시난이, 신세계백화점, 양순연, 유재복, 윤주석, 윤채환, 이상돈, 이설희, 이은정, 이재호, 이지수, 임재종, 정은연,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옥란, 현대자동차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트

2018 제23회 ○○동계올림픽

| 가로열쇠 |

- 주로 여성의 다리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제책.
-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 나쁜 꾀로 남을 속임.
-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못. 화산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표면 수온은 7월에 9.4℃, 내부 수온은 연중 4℃이고, 가장 깊은 곳은 312미터 정도이다. 중국 송화 강(松花江)으로 흘러드는데 못의 동쪽 기슭인 송화 강 상류에는 온천이 있다. 면적은 약 7km².
-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포지션은 미드필더이며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볼턴 원더러스 FC 소속으로 뛰고 있다.

| 세로열쇠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궁궐. 조선 태종 때에 건립된 것으로 역대 왕이 정치를 하고 상주하던 곳이며, 보물 383호인 돈화문 따위가 있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깨어 정신을 차림.
-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음.
- <지리> 바다가 편편한 땅.
- 여행자의 편의를 돌보아 주는 영업 기관.
-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B.C.145~B.C.86). 자는 자장(子長). 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사기》를 완성하였다.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환경부 소속으로,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1990년 12월에 ‘중앙 기상대’에서 승격하였다.
- 오랫동안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지각이 흔들리는 일. 지학(地學)에서는, 지구 내부의 한 곳에서 급격한 움직임이 일어나 그곳에서 지진파가 시작되어 지표(地表)까지 전하여지는 일을 이른다. 진도(震度)에 따라 미진, 경진, 약진, 중진, 강진, 열진, 격진으로 나눈다.

지난호 정답

	1★제					
	2중	절	3모		4연	극
5자	원		6비	타	민	
동			덕			
7문	8★예					
	비		9이	혼		
	10군	주	론		11★술	법

6월호 정답

예술제

당첨자

김민애 서울시 노원구 공릉3동
김미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정연희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을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스쿠터·전동 휠체어 구입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NEW
7월출시제품

의료용스쿠터 P Bar(TE-888NR) 소비자가-2,100,000원
최고속도 8Km/h / 최대주행거리 완충전시 40Km

百歲童顏 100세 동안에서는
차별화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의료용스쿠터 TE-889NR 소비자가-2,300,000원
최고속도 12Km/h / 최대주행거리 완충전시 25Km



전동휠체어 TE-PHFW-10 소비자가-2,090,000원
최고속도 6~8Km/h / 최대주행거리 완충전시 25Km

글로벌 헬스케어그룹 대웅제약 가족, 百歲童顏 100세 동안 전국 가맹점에서 지금 즉시 구매가능!



긴급구호출동 및 전국 A/S 시스템

www.100age.co.kr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차별화된 제품

- 대만 GMP업체 PIHSIANG MACHINERY MHG, Co, Ltd. 의 샵라이더
- 미국 FDA, 유럽 CE 인증마크 획득
- 최고속도(12km/h), 델타핸들, 고성능 배터리, 360도 회전일자 장착 (의료용스쿠터)

안전보장 A/S

- 긴급상황발생시 현장으로 30분내에 전문가구호출동
- 배터리, 타이어, 구난서비스 무상제공
- 지역별 전문 A/S 센터 운영 및 신속정비서비스

대웅제약관계사

- 글로벌 헬스케어그룹 대웅제약의 관계사, 100세동안운영
- 전국 100세동안가맹점에서 전판매 및 체험가능
- 이동보조보장구제도안내 및 1:1 맞춤건강상담 서비스제공

百歲童顏 100세 동안 제품 및 구입문의
02-3016-6905~6

가/맹/점 서울 서초직영점 관악점 오류점 사당점 종로구점 서대문점 서남병원점 경기 분당점 단원점 수지점 고양점 구리점 파주제일점 파주점 하남점 인천 계양점 남동구점 송도연수점 부산 동래직영점 경남 경남지점 경주점 울산 울산지점 대구 대구지점 서문시장점 경북 칠곡점 상주점 영주점 전북 전주완산점 전남 광주점 목포점 여수점 장성점 충북 제천점 청주청원점 충남 당진점